2018년 8월 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애플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

애플, 사상 첫 시가총액 1 조달러 돌파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감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애플이 사상 첫 시가총액 1 조 달러를 넘어서자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 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산업재 업종이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다우 지수는 하락(다우 -0.03%, 나스닥 +1.24%, S&P500 +0.49%, 러셀 2000 +0.77%)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분쟁 ②애플 시가총액 1 조 달러 돌파 등으로 인해 변화. 먼저 무역분쟁과 관련 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44 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발표. 한편, 지난 7 월 18 일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는 상무부를 통해 협상과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희롱 하는 것이냐' 라며 강한 반발. 특히 2 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반격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 라고 발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상태의 언급. 시장 참여자들은 8 월 초 있을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 한편, 1 일 스타벅스가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내 커피 배달영업을 발표하고, 구글은 중국 정부가 언급했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며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

애플이 워렌 버핏이 자사주 매입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하자 사상 첫 시가총액 1 조 달러를 돌파. 이에 힘입어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 1976 년 4 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설립한 애플은 한때 1997 년 파산 직전 상황까지 몰리며 주가가 1 달러 미만으로 하락.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다시 CEO 로 되돌아 온 이후 2001 년 10 월 '아이팟'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 특히 2007 년 6 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시장을 석권. 이후 '아이패드', 웨어러블 시대를 알리는 '애플 워치'를 발표하는 등 IT 기술의 혁신을 주도. 애플이 시가총액 1 조 달러를 넘어서자 일명 'FANG'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강세를 보이자 미 증시는 상승 전환에 성공

애플의 역사

1976년 4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
1984년 1월	맥킨토시 컴퓨터 출시
1985년 9월	스티브 잡스 해고
1997년	애플 파산 위기, 주가 1달러 미만
1997년 9월	스티브 잡스 CEO 영입
1998년 8월	아이맥 출시
2001년 10월	아이팟 출시
2007년 6월	아이폰 출시
2010년 1월	아이패드 출시
2014년 9월	애플 워치 출시
2015년 6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2017년 9월	아이폰X 출시

자료: AP통신,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270.20	-1.60	홍콩항셍	27,714.56	-2.21
KOSDAQ	781.38	-1.12	영국	7,575.93	-1.01
DOW	25,326.16	-0.03	독일	12,546.33	-1.50
NASDAQ	7,802.69	+1.24	프랑스	5,460.98	-0.68
S&P 500	2,827.22	+0.49	스페인	9,698.20	-1.03
상하이종합	2,768.02	-2.00	그리스	755.93	-0.75
일본	22,512.53	-1.03	이탈리아	21,414.72	-1.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애플(+2.92%)이 워렌 버핏의 자사주 매입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를 언급 하자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힘입어 알파벳(+0.66%), 페이스북(+2.75%), 아마존(+2.07%), 넷플릭스(+1.81%) 등 FANG 기업들이 동반 상승 했다. 특히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아마존(시가총액 9천억 달러)이 2% 넘게 상승 했다. JP모건(+0.42%), BOA(+0.10%), 웰스파고(+1.11%) 등 금융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테슬라(+16.19%)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상향되는 등 우호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급등 했다. 마이크론(+2.12%), 인텔(+1.37%) 등 반도체 업종도 기술주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고프로(-2.12%)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하자 시간외로 10% 내외 상승 중이다. 반면, 엑손모빌(-0.60%), 셰브론(-1.30%), 코노코필립스(-0.35%)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31%	대형 가치주 ETF	+0.08%
에너지섹터 ETF	-0.78%	중형 가치주 ETF	+0.36%
소매업체 ETF	+1.04%	소형 가치주 ETF	+0.42%
금융섹터 ETF	+0.04%	배당주 ETF	+0.29%
기술섹터 ETF	+1.26%	변동성 ETF	-1.0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5%	대형 성장주 ETF	+0.88%
인터넷업체 ETF	+1.43%	중형 성장주 ETF	+1.25%
리츠업체 ETF	-0.48%	소형 성장주 ETF	+0.93%
주택건설업체 ETF	-0.03%	신흥국 고배당 ETF	-1.22%
바이오섹터 ETF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7%
헬스케어 ETF	+0.37%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34%	물가연동채 ETF	+0.05%
반도체 ETF	+1.01%	Long/short ETF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8.66	-0.52%	-1.84%	+0.48%
소재	368.08	-0.72%	-1.38%	+1.04%
산업재	636.44	-0.17%	-0.30%	+5.36%
경기소비재	886.78	+0.63%	-0.44%	+1.78%
필수소비재	550.67	+1.08%	+0.74%	+2.93%
헬스케어	1,031.90	+0.29%	+0.73%	+5.13%
금융	464.02	+0.04%	-0.38%	+5.36%
IT	1,272.67	+1.37%	-1.18%	+3.34%
통신	149.76	+0.18%	+3.23%	-0.68%
유틸리티	267.29	+0.53%	-0.26%	-0.17%
부동산	204.26	-0.53%	+1.06%	-0.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2.18% MSCI 신흥 지수도 1.3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58 계약)에 힘입어 1.25pt 상승한 294.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는 애플이 시가총액 1 조 달러를 돌파하자 IT 와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혁신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상승을 이끈 것이다. 최근 FANG 기업들의 변동성 확대 여파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으나, 애플이 사상 첫 시가총액 1 조 달러를 상회하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발표 했다. 유해송환 등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서 전달 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친서 전달을 발표했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다시 보기를 희망한다" 라고 언급 했다.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도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7 월 18 일 이후 무역분쟁과 관련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물밑 협상과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발한 점은 부담이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내용이었으며 그동안 해왔던 통상적인 수준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발이 나왔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다. 다만, 전일 무역분쟁 우려로 변동성을 키웠던 상품시장이 안정을 찾은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 개별 종목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21 만 7 천건) 보다 증가한 21 만 8 천 건으로 발표 되었으나 예상치(22 만건) 보다는 낮은 수치다. 연속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74 만 7 천건) 보다 감소한 172 만 4 천건으로 발표되면서 고용시장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6 월 공장 수주는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운송을 제외한 공장재 수주도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전일 EIA 가 발표한 원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 했으나, 이는 수출을 위해 재고를 쌓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재고 감소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다음 주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시작 한다는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다만,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남아 있어 상승은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전일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가 증가 했으며,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 중 고용지수가 상승 했다. 더불어 이날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고용개선 기대감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파운드화는 금리를 인상 했으나, Dovish 한 내용이 발표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 엔화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과 주식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한편, BOJ 가 장기 금리 변동폭 확대를 용인한 이후 채권 금리가 상승했으나 이날 미 채권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일부 품목은 하락하기도 했으나,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체적으로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7%, 철근도 1.1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68.96	+1.92	-0.93
브렌트유	73.45	+1.46	-2.22
금	1,220.10	-0.61	-1.23
은	15.385	-0.43	-0.71
알루미늄	2,036.00	-0.78	-1.50
전기동	6,139.50	-0.53	-2.41
아연	2,563.00	+0.31	-0.81
옥수수	381.25	+0.46	+1.46
밀	560.50	+0.40	+4.47
대두	897.50	-0.47	+2.45
커피	106.70	-1.25	-2.60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5.159	+0.53	+0.39
EUR/USD	1.1584	-0.65	-0.51
USD/JPY	111.66	-0.06	+0.39
GBP/USD	1.3017	-0.84	-0.70
USD/CHF	0.9955	+0.34	+0.13
AUD/USD	0.7363	-0.55	-0.19
USD/CAD	1.3021	+0.13	-0.41
USD/BRL	3.7578	+0.20	+0.28
USD/CNH	6.8796	+0.81	+0.78
USD/KRW	1126.10	+0.49	+0.61
USD/KRW NDF1M	1127.75	+0.94	+0.3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86	-2.05	+0.95
한국	2.572	-1.30	+2.20
일본	0.126	-0.50	+3.20
독일	0.460	-1.80	+5.6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454	+0.30	+9.40
포르투갈	1.800	+2.20	+7.80
그리스	4.053	+11.20	+23.40
이탈리아	2.908	+12.40	+20.70